

11월, 2005 포천 38선 하프마톤대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11월 13일 '2005 포천38선 하프마톤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관계자 회의에서 확정했다. 포천시 신북면 모음식점에서 개최된 관계자 회의는 마라톤, 육상 관계자 및 시 체육회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해 3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대회명칭 '2005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대회' ▶개최일은 오는 11월 13일 ▶코스는 5군단~성동점문소(반환점)로 결정했다.

청소년 생활체육 캠프 8월 18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는 오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포천시 영북면 한화리조트에서 '청소년 생활체육 캠프'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여름철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청소년 생활체육 캠프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와 31개 시·군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한다. 경기도 관내 6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캠프는 래프팅과 수상물놀이(캐논수영, 보트놀이, 스프링게임), 별밤 하이킹,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동남고, 홍지은 도학생 골프대회 뒀다

홍지은(동남고 3년) 선수가 제19회 경기도 학생종합골프선수권대회 여자 고등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홍지은 선수는 지난 12일 가평 선월골프클럽(파72)에서 개최된 대회 마지막날 여고부 2라운드 경기에서 합계 144타를 기록, 김은정(낙생고·140타)과 김빛나(신갈고·142타)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편 동남고는 여고부 단체전에서 439타를 기록한 낙생고에 이어 합계 448타를 기록, 은메달을 차지했다.

포천시장배 야구대회 '엘리펀츠'優勝

열악한 구장 여건개선 기반 조성 절실

엘리펀츠, 자이언츠, 나이스, 영건스, 룩스가 맞붙은 제1회 포천시장배 야구대회 초대 우승은 엘리펀츠가 차지했다. 포천시야구연합회(회장 장승호)는 지난 10일 포천고등학교에서 결승전 및 3·4위전을 치르고 5월 1일부터 2달 여간 치러진 포천 최초의 리그전을 마쳤다. 우천으로 인해 일주일 늦춰진 상황에서 개최된 이날 결승전은 엘리펀츠와 자이언츠가 7회까지 밀고 밀리는 가운데 7대 4로 엘리펀츠가 우승을 확정지었다. 경기 초반 자이언츠에 2대0으로 밀리던 엘리펀츠는 5회말 3대3으로 동점을 이룬 뒤, 7회말 1점을 더해 7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결승전에 이어 나이스와 영건스가 맞붙은 3·4위 전에서는 나이스가 짜릿한 19대9 역전극을 펼치며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리그전으로 치러진 포천시장배 야구대회는 ▶우승에 엘리펀츠 ▶2위 자이언츠 ▶3위 나이스 순으로 순위가 결정됐다. 장승호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포천 야구의 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무엇보다도 가을



엘리펀츠, 자이언츠, 나이스, 영건스, 룩스가 맞붙은 제1회 포천시장배 야구대회 초대 우승한 엘리펀츠 선수단이 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갈월중 태권도부, 대만 창화 오픈 소년부 우승

국제감각 키울 수 있는 계기 마련



2005 대만 창화 오픈 소년부에서 우승한 갈월중 태권도부 선수들이 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했다. 흥청대와 대만 건국과학기술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태권도 문화축제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을 비롯, 미국 필라핀 호주 등 세계 27개국 75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해 겨루기와 무예부문(품새, 호신술, 격파, 자유경연)에서 실력을 겨루며 우정의 가교를 쌓았다. 갈월중 태권도부는 선수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치열하게 진행된 겨루기에 출전해 대만팀을 힘겹게 누르고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위상을 세웠다. 한편 김태선 갈월중 태권도부 코치는 "이번 대회의 출전을 통해 어린 꿈나무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깨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뷰 18

포천시태권도협회

조복현 회장

국제교류 통한 세계 최고 선수 키운다



조복현 회장
 포천시태권도협회

포천시태권도협회는 1960년대 후반에 태동, 1998년부터 조직화 돼 포천지역에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 저변확대를 꾀하는 등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지난 3월 16일 포천시여성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 취임한 조복현(53·사진) 회장으로부터 포천시태권도협회의 발전상을 들었다. 조복현 회장은 포천시 군내 면에서 하수관 생선에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국제산업(주)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기업인이다. 포천시태권도협회는 현재 1명의 회장과 남순우, 이문환, 박노현, 나근수, 정남용, 임영선, 이재학, 이해신, 박중수의 부회장단, 김종천 전무이사, 조지환, 한관수 감사 등의 임원진과 12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태권도협회는 분야별 전문이사제도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윤복재 총무재정이사, 김태선 심판이사, 이동한 경기이사, 이용운 심판이사, 박인섭 기록이사, 장대진 도장관리 이사, 추효종 국제교류이사, 김정은 기획홍보이사를 두고 각 중 대회시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포천시태권도협회에 소속된 체육관은 영북, 청우, 영중, 이동, 한국, 고려, 흥인, 신북, 추산, 선단한국, 내촌, 흥호, 정무, 경희, 관인, 명지, 예일, 일동한국, 용인대 한국체육관 등 모두 17개이다. 태권도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나 사범교육 등이 안될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조복현 회장은 "현재 대회를 치러보면 학생 포함 선수만 700여명정도 출전하고 있다"며 "아마도 저변은 4천명이상이라고 봐도 무난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많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포천에는 많은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포천시체육회장배와 교육장배 겸 협회장배 대회를 봄과 가을에 걸쳐 실시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체육회장배 개최시 300만원,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배 개최시 1명만 빌려 대회비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2개대회 개최시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열악한 태권도의 경제적 기반 등을 고려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권도협회는 평상시 체육관별로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가을 갈월중 태권도부의 창단과 발맞춰 체계적인 엘리트 체육인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 회장은 "기존에는 영북종교와 일동종교 태권도부가 전부어서 고교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는 것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수고를 덜게 됐다"며 "각종 전국대회에서 출전해서도 인근 의정부나 대도시 체육관의 입상성적보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천의 태권도 실력을 견주어볼 때 고무적인 일이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는 갈월중, 영북종교, 일동종교, 포천시청 태권도팀에 이어지는 연계교육의 체계가 갖춰지게 됐고, 대진대학과 연계하는 대학팀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 포천시태권도협회는 해외교류를 통한 국제적인 체육인 양성에 추진하고 있다. 조 회장은 "최근 갈월중학교가 창학 오픈에 출전하는 등 매년 포천시태권도협회에서 우수학생들을 선발 국제대회에 참가시키고 있다"며 "어린 꿈나무들의 국제적 안목을 키워주는 것 역시 포천의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전자호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고 주장했다. "최근의 판정비 및 올림픽 퇴출위기 등 국제 경기에서 태권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이라 여긴다"고 밝혔다. 또한 "저변 확대를 위해 포천시태권도협회는 창작품새나 태권무 개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겨루기나 격파를 개발에도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16일 포천시태권도협회 회장 취임식 조복현 회장과 관계자들이 태권도발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포천시 POcheon-SI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The City Where Nature and People Meet - Pocheon!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늘 푸른 전원도시 포천
4계절 자연이 살아 숨쉬는 포천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포천 아시아 미술제
일시: 2005년 9월 23일~10월 23일
장소: 포천반월아트홀



포천석(石) 국제조각 심포지엄
일시: 2005년 7월 23일~8월 21일
장소: 산정호수 수변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일시: 2005년 10월 1일~10월 4일
장소: 포천종합운동장



제9회 신정호수 명성인 익새꽃 축제
일시: 2005년 10월 8일~9일
장소: 신정호수 명성인 일대

오성과한음

주요관광지

산정호수, 백운계곡, 포천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왕방산(737m), 백운산(904m), 명성산(935m), 국망봉(1168m)

레저시설

베어스타운리조트, 산정호수한화콘도, 골프장 6개소, 온천 7개소, 클레이사격장, 승마장, 허브아일랜드

특산물 및 먹거리

이동갈비, 막걸리, 개성인삼, 버섯, 가산포도, 오리농법청정미, 풍혈산 순두부, 배상면주가

포 천 시 청

031)538-2114

http://pcs21.net